

West Kalimantan

2017년 9월 기도편지

배성현. 이산정. 지온. 승은. 승우 가족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서부칼리만탄의 광활한 대지를 밟고 정글을 향해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하며 적도의 땅 소식을 전합니다.

* 시골 지역 교육 개발 사역



방과 후 교실을 위한 교육 기자재 전달



방과 후 교실 교사 후보생들

지난 8월 25일에는 교육법인 교육개발사역의 일환으로 방과 후 교실 사역이 시작된 “빠꾸찡(Pakucing)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방과 후 교실을 위한 교육 기자재를 전달 받고서 흐뭇해하시며 계속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던 마을 이장님의 미소가 아직도 잊혀 지질 않습니다. 초등학생 동생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원한 교사 후보생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무척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과 피드백, 그리고 이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사역이 뿌리를 잘 내리고, 아울러 이 사역을 통해 폰티아낙으로 연결될 잠재적 대학생들이 임마누엘침례교회와 잘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한글 교실



지난 8월 17일에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한글 교실 4단계 학생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 교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아직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2년 동안 함께 해 온 이 학생들이 언젠가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날을 기대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아울러 계속

e-mail: 0212bae@hanmail.net / 인터넷전화(국가번호와 지역번호 없이): 070-4843-9485

후원계좌: 국민은행 048401-04-128048 (배성현) 우체국 013052-02-169596 (배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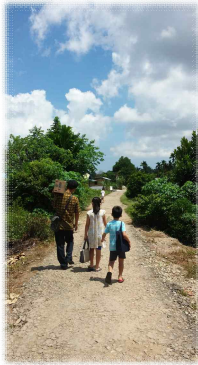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정글교회 사역 및 자립세미나



한 달에 한 번 정글교회(칼리마스침례교회)로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이 부쩍 컸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어느덧 아빠의 짐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자랐고, 이제는 작렬하는 적도의 태양 아래를 걷는 것도 불평하지 않고 땀을 흘려내며 묵묵히 걸을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저 혼자 방문했을 때보다 아이들이 함께 왔을 때 더 반가워하며 좋아하는 정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꼬마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있는 아이들이 대견할 뿐입니다. 교회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칼리마스침례교회의 많은 필요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함 가운데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14-15일 이틀 동안 열린 정글교회 자립세미나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 정글교회 목회자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보다 세미나를 인도한 제가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이곳 정글교회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 질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하는 것이 제가 이곳 칼리만탄섬에 있는 동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는 스피트보트를 처음 타게 되서 내심 불안했었는데, 오히려 더 큰 환호로 호응해주던 정글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서, 목회의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이지만, 우리를 인도해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리라 다짐해봅니다.

*임마누엘성서침례교회



만 2년이 된 임마누엘성서침례교회는 새로운 임대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초창기 가정에서 모이던 때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재정 상황에 맞는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일학교 사역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장소의 필요가

절실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렵게 되어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어려운 중에 성도들과 기도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서 한 편으로는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기다림’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계속 최선을 다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임마누엘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 뜻 하지 않은 고난

지난 9월 19일 화요일 오후에 갑자기 10여명의 이민국 직원과 경찰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저는 물론이고 아내와 아이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법에 의하면 거주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고, 그와는 별도로 노동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일(사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의 비자를 담당해주는 이곳 스폰서의 실수로 제가 일 할 수 있는 지역의 표기가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비자 연장을 하면서 노동허가지역에 제가 있는 폰티아낙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을 요구했었는데, 알겠다는 답만 하고 수정을 해 놓지 않은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것이지요.

이민국에서 제기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일 할 수 없는 지역인 폰티아낙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 거주허가는 자카르타에서 받고 실제로는 이곳 폰티아낙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민국법을 어긴 것이라 벌금을 내고 폰티아낙에서 추방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 만들어 올 때까지 저를 붙잡아 둘 수밖에 없다며 가족들 앞에서 저를 연행해 가려고 했는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에 저를 연행하는 대신 저를 포함한 가족 모두의 여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분의 인맥을 통해서 이민국 고위 간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히 구비해 놓는다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유예를 받고 여권을 다시 돌려받아 큰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서류가 구비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큰 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연락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한 서류 수정 및 수속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비자를 새로 발급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아이들 학기가 끝나는 12월초에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서 새로운 비자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경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저와 가족 모두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는데, 그간에 있었던 사역과 제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빛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곳 적도의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이곳의 여러 필요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30일
적도의 땅 폰티아낙에서
배성현 선교사 가정 드림

적도의 땅
폰티아낙을
가슴에 품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인도네시아
서부칼리만탄을
복음화시키는
소중한 씨앗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역의 필요>

1. 임마누엘성서침례교회 예배당 임대를 위한 재정이 채워지고, 적당한 장소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가정에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임마누엘성서침례교회 사역을 함께 할 좋은 목회자가 구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팔리마스침례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한 비용(1500만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교육법인의 교육개발 사역(방과 후 교실)을 통해 시골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임마누엘침례교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비자 관련 문제로 잠시 방학에 들어간 한글교실 사역이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고 계속 이 모임을 기억하고 강의가 시작되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한국어 강의를 듣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 사역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재정적 필요도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후원교회 및 후원자가 계속 잘 연결되어 이곳에서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의 필요>

1. 사역과 거주의 안전을 위한 서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새롭게 연결된 스폰서를 통해서 비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12월초부터 갖게 될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가족들이 심적, 육적으로 잘 회복되어 새로운 2기 사역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가족 모두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가족 모두가 육체적으로 늘 건강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지은, 승은, 승우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